

영화 REVIEW **분노의 질주 : 홉스 앤 쇼**

액션을 살리고 몰입도 높이고

신나는 액션 시퀀스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몰입도 높은 영화다. 다만 '분노'만 남고 '질주'는 사라져 버렸을뿐이다.

영화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는 '분노의 질주: 더 세븐',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에서 활약한 할리우드 대표 액션 배우 드웨이 존슨(47)과 제이슨 스테이섬(52)을 주연으로 한 스피노프 버전이다. 할리우드의 액션스타들과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만나 러닝타임 136분이 금세 지나간다.

드웨이 존슨이 '홉스'다.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의 아이콘 '더 락'으로 활약한 그는 장기간 강력한 힘으로 뛰든지 때려 부수는 묵직한 액션을 선보인다. 제이슨 스테이섬은 영국 남자 '쇼'를 연기했다. 영국 국가대표 다 이빙 선수 출신인 그는 킥복싱, 가리테 등 화려한 무술실력을 바탕으로 고난도 스텝트 연기를 직접 소화했다. 스테이섬은 이 작품에서 존슨과 대비되는 민첩성과 빠른 판단력을 활용한 액션을 선보인다.

서로를 싫어하는 두 주연이 '티키타카' 하는 과정에서 특히 도드라지는 '구강액션'도 큰 볼거리다. '투크 홉스'와 '데카드 쇼'는 전작들에서 적과 라이벌이었던만큼 악연으로 얽힌 관계다. 그들이 서로에게, 때로는 적들에게 던지는 저질스러운 말들은 영화 중간중간에 웃음으로 관객의 긴장감을 잠시 풀어주기에 충분하다.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미국식 개그를 좋아하는 관객에게 영화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할리우드에서 최근 가장 신경쓰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PC)도 어색하지 않게 충분히 잘 녹였다. 극중 쇼의 동생이자 MIB의 독보적 에이전트 '해티'로 출연한 베네사 카비(31)의 액션 연기는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카비는 고강도 액션과 탁월한 연기력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영화의 제목이 '홉스, 쇼

앤 카비'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영화 후반부에서 홉스의 뿌리인 사모아족 사람들은 세계를 위협하는 슈퍼휴먼 '브릭스턴'(이드리스 엘바) 일당과의 전투에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전투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해당 시퀀스는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

드웨이 존슨·제이슨 스테이섬 주연 두 주연이 '티키타카' 하는 과정에서 도드라지는 '구강액션' 큰 볼거리로 액션신 벌어지는 장소적 볼거리 풍부 시리즈 정체성 잃은 것이 아쉬움으로

이들과 맞서는 '브릭스턴'이 단순히 세상을 파괴하려는 빌런이 아닌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영화에서 브릭스턴과 그가 모시는 정체불명의 보스는 '대의'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들은 단순히 세상을 파괴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이러스를 손에 넣으려하기보다, 자신들이 믿는 '대의'와 '진화'를 추구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기술의 진보와 문명의 이기가 과연 인간에게 반드시 이로울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액션신이 벌어지는 장소적 볼거리도 풍부하다. 극중 홉스와 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빈다. 주요 액션신의 배경이 되는 런던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인 피커딜리 광장, 세인트폴 대성당을 배경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특히 세인트폴 대성당의 야경은 압권이다. 차가운 런던과 대비되는 사모아섬, 하와이 카우아이섬의 경관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너른 바다와 산, 자연 지



형이 어우러져 관객의 눈을 호강시켜 준다. 여기에 세트도 보는 맛을 더한다. 특히 사모아 절벽의 풍광과 협곡은 9만9174㎡(약 3만평)에 달하는 스튜디오에 세워진 다층의 대규모 세트다.

그러나 시리즈의 정체성을 잃은 것은 가장 비판 받을 지점이다. '분노의 질주'를 다른 액션 블록버스터와 가장 차별화시키는 점은 '도미니 토레토'를 중심으로 한 카체이싱과 드리프트다. 하지만 이번 작품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그 비중이 축소됐다. 맨손 격투신부터 총격전, 대규모 폭발신까지 관객을 몰입시켜주는 다양한 액션 시퀀스로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분노의 질주' 전매특허 격인 자동차로 질주하며 벌이는 액션 시퀀스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명분도 살렸던 후반부 액션 시퀀스에서는 '질주'보다 '맨손싸움'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 듯 보여 아쉬움이 남았다. OST도 약간 아쉽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영화뿐 아니라 영화의 OST 자체로도 인기를 누려왔다. 특히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의 OST '시 유 어게인'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2주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작품의 OST가 각각의 시퀀스와 어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귀에 착착 감기는 OST는 부재하다. 음악감독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 '데드풀 2'의 음악을 맡은 타이러 베이츠(54)가 담당했다. 그가 이전 '분노의 질주' 시리즈 OST의 인기를 이어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노의 질주'만의 액션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스피노프 버전일 수 있다. 다만 '분노의 질주'의 팬이 아닌 블록정 액션 영화를 찾던 관객에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영화일 것이다. 136분, 12세 이상관람가.

/뉴시스

송은이·김숙의 '영화보장'

알고 보면 재미있는 정보 스크린에서 찾아낸다

코미디언 송은이(46)가 영화 예능물을 선보인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송은이·김숙의 영화보장이 23일 오후 9시40분 첫 방송된다"며 "스카이드라마와 채널A에서 매주 금요일 공동 편성된다"고 밝혔다.

영화 속 쓸데 없지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토크쇼다. 송은이, 김숙(44)과 함께 정황준(50) 감독, 코미디언 황제성(37), 박지선(35)이 토크쇼다. 영화 속 '신스틸러'가 게스트로 등장, 에피소드를 전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도 곁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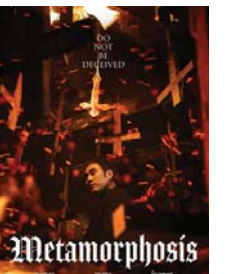
송은이는 출연자이자 기획자로 참여한다. 그 동안 송은이가 설립한 제작사 비보티비는 KBS 2TV '김성민의 영수증', 올리브 '밥블레스유', JTBC2 '판별러'이벤트 판은 '한복판' 등을 선보였다. /뉴시스



배성우 주연 영화 '변신' 45개국 수출

영화 '변신'이 해외에서도 개봉한다.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주요 45개국에 선판됐다. 배성우 콘텐츠판다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악마라는 공포 소재, 가족 공포라는 점에서 해외 바이어들이 콘텐츠 경쟁력을 높게 산 것 같다"고 전했다. 해외 선판매 소식과 함께 공개된 해외 포스터에서는 '변신'으로 변신에 도전한 배성우의 모습이 담겼다. 영화 속 '강구'(성동일) 가족의 삼촌 '중수' 역을 맡은 배성우는 현실감 있는 공포의 균형감을 탁월하게 잡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악마가 가족 안에 숨어들며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을 그린 공포 스릴러다. 21일 개봉. /뉴시스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 배우 정해인 캐릭터 스틸 선배

'유열의 음악앨범'이 배우 정해인(31)의 캐릭터 스틸을 선보였다. 정해인은 '유열의 음악앨범'에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현우'의 이야기를 자신만의 색깔로 풀어냈다.

정해인이 연기한 현우는 인생에서 가장 불안했던 시기인 1994년 기적처럼 '미수'를 만나 행복했던 시간과 인연을 지켜내고 싶어 노력하는 캐릭터다. 유독 자신에게만 찾아오는 듯

한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며 삶의 가장 큰 행복을 지켜내려는 현우 캐릭터는 이 시대의 청춘에게 공감과 위로로 전한다.

정지우 감독은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인데, 정해인은 진짜 속이 더 잘생긴 배우다. 현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실수, 그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 받는 현우의 모습을 정해인



배우의 속 깊은 연기로 신뢰도를 더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해인은 "현우는 나이대별로 큰 사건을 겪는다. 그런 것들을 겪으며 불안하고, 불운전한 청춘의 시간 속 주체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현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영화 '유열의 음악앨범'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처럼 우연히 만난 두 사람 미수(김고은)와 현우(정해인)가 오랜 시간 엇갈리고 마주할 반복하며 서로의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28일 개봉.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